1. 총　론

1). 횡성군 위치

횡성군은 우리 나라 중부지방인 강원도의 서남부인 영서지방에 위치하고 있다. 동쪽은 평창군, 서쪽은 경기도 양평군, 남쪽은 원주시와 영월군, 북쪽은 홍천군과 각각 접하고 있다.

위·경도상의 위치로는 위도상 북위 37도 32분(남쪽)에서 37도 41분(북쪽) 사이에 걸쳐 있고, 경도상으로 동경 127도 46분(서쪽)에서 128도 20분(동쪽)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단은 둔내면 삽교리, 서단은 서원면 유현리, 남단은 강림면 부곡리, 북단은 청일면 봉명리이다.

2). 횡성군 면적과 지형

횡성군의 총 면적은 997.67㎢로, 이는 남한 총 면적의 0.99%에 해당되며, 서울 면적의 1.6배, 강원도 면적의 4.8%를 차지하고 있다. 읍·면의 면적을 살펴보면 횡성읍이 가장 적은 72.42㎢이며, 청일면이 가장 넓은 133.75㎢이다.

횡성군은 태백산맥의 영향으로 강원도내 다른 곳과 같이 대부분이 산지로 형성된 곳이지만, 큰산이 많은 동북방이 산악지대인 데 비해 서남방으로 갈수록 산세가 완만하고 비교적 넓고 비옥한 평야를 이룬다. 최저 지대가 횡성읍으로 표고 110m이고, 둔내면은 평야지대가 500m의 고지대로 형성되어 그 격차가 크다.

산악으로는 태기산, 청태산, 봉복산, 운무산이 동북방에 선을 이어 산맥을 이루고, 북방으로는 수리봉, 발교산, 오음산이 있고, 동방으로는 사자산, 배향산이 있으며, 남으로는 치악산 국립공원내의 남대봉, 향로봉, 비로봉과 매화산이 있고 서쪽으로는 성지봉이 있다.

하천은 모두 남한강에 속하고 있으며, 지방하천 1개와 준용하천 17개의 하천이 있다. 횡성, 우천, 갑천, 공근지방의 세천과 하천은 모두 횡성읍으로 합류하여 섬강을 이루고, 둔내면, 안흥면, 강림면의 세천과 하천은 강림의 주천강에서 합류하여 영월군을 통하여 흐르며, 서원면의 하천은 옥계리를 통해 원주시의 남한

강 하류에서 합류한다.

평야로는 횡성읍 앞들, 우천면 문암들이 있으며, 비교적 평야가 적은 강원도에서의 횡성 앞들은 비옥하고 넓은 들로 손꼽혀 오고 있다.

3). 횡성군 연혁

횡성군은 고구려 때 횡천현(橫川縣) 또는 어사매(於斯買)라 하였는데, 신라 경덕왕 때 황천(潢川)으로 고쳐 삭주군(朔州郡:춘천)의 영현(領縣)이 되었다가, 고려 때 다시 횡천(橫川)이라 하여 원주(原州)에 붙였으며, 조선 태종 14년(1414) 홍천(洪川)과 그 음이 비슷하다 하여 횡성(橫城)으로 고쳤으며, 고종(高宗) 32년(1895)에 지방 관제 개정에 의하여 원주군 고모곡면(古毛谷面)을 편입하여 군으로 승격하여, 현내(縣內), 청룡(靑龍), 우천(隅川), 정곡(井谷), 둔내(屯內), 갑천(甲川), 청일(晴日), 공근(公根)의 8개 면을 관할하다가, 1914년 군면 폐합에 따라 군내면과 청룡면 일부를 병합하여 우천면으로 고치고, 그 나머지 정곡, 갑천, 청일, 공근, 고모곡은 그대로 두었다가, 1937년에 정곡면을 안흥면(安興面)으로, 군내면을 횡성면(橫城面)으로, 고모곡면을 서원면(書院面)으로 고치고, 1963년 1월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영월군(寧越郡) 수주면(水周面)의 강림(講林), 부곡(釜谷), 월현(月峴)의 3개 리를 안흥면에 편입 시켰으며, 1973년 홍천군(洪川郡) 남면(南面) 상창봉리(上蒼峰里)가 공근면에 편입되었다. 1979년 5월 1일 횡성면이 횡성읍(橫城邑)으로 승격하여 횡성군은 1읍 7면이 되었다. 1982년 서원면 산현리(山峴里), 매호리(梅湖里)와 압곡리(鴨谷里)의 일부가 원주군(原州郡)에 편입되고, 1989년 4월 1일 안흥면 강림리, 부곡리, 월현리를 관할하던 강림출장소가 강림면으로 승격되면서, 횡성군은 횡성읍, 갑천면, 강림면, 공근면, 둔내면, 서원면, 안흥면, 우천면, 청일면 등 1읍 8면이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횡성읍(橫城邑)

[위 치]

횡성읍은 동쪽으로 우천면, 서쪽으로는 서원면과 원주시 호저면, 남쪽으로는 원주시 소초면, 북쪽으로는 공근면과 갑천면 등과 각각 접해 있다.

[연 혁]

본래 횡성현의 소재지이므로 현내면(縣內面)이라 하다가, 고종 32년(1895년)에 군내면(郡內面)으로 고쳐서, 교항(橋項), 읍상(邑上), 읍하(邑下), 내지(奈之), 마옥(磨玉), 궁천(弓川), 송전(松前), 북천(北川), 소군(昭君), 옥동(玉洞), 영영포(永永浦), 개전(介田), 마산(馬山)의 13개 리를 관할하다가, 1914년 군면 폐합에 따라, 청룡면(靑龍面)의 갈풍(葛豊), 반곡(盤谷), 모평(茅坪), 곡교(曲橋), 청룡(靑龍), 묵계(墨溪), 가담(佳潭), 입석(立石)의 8개 리를 병합하여 다시 군내면이라 하다가, 1937년에 횡성면으로 고치는 동시에 소군리를 마옥리에 폐합하여 20개 리가 되었다. 이후 1973년 행정관할구역 개편으로 우천면(隅川面)의 조곡(鳥谷), 생운(生雲), 남산(南山)과 공근면(公根面)의 학곡(鶴谷) 일부를 편입하였고, 1979년 5월 1일에는 횡성면에서 횡성읍(橫城邑)으로 승격하였으며, 1982년 2월 15일 행정구역 개편으로 우천면의 정암(正庵)과 추동(楸洞)을 편입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읍상리(邑上里)

횡성읍의 위쪽이 되므로 읍상동(邑上洞)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괴정거리, 박석고개, 뱀구뎅이, 향교말을 병합하여 읍상리라 하였다. 읍상 1,2,3,4,5리로 분리되어 있다.

괴정고개 [고개] 읍상1리에서 북천리로 넘어가는 고개로, 예전에 느티나무 정자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박석고개 [고개] 박씨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박석(薄石)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박석:넓고 얇게 뜬 돌)

박수고개 [고개] 박씨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어떤 분을 환송하느냐고 이 고개에서 박수를 쳤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박석고개라고도 한다.

박씨고개 [고개] 횡성읍사무소 앞에 있는 고개로, 예전에 박을 많이 심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박석고개, 박수고개라고도 한다.

배암고개 [고개] → 배웅구뎅이

배웅구뎅이 [고개] 읍상4리에 있는 고개로, 조선 선조 때 현감(縣監) 구순(具楯)이 월천(月川) 조목(趙穆)을 이 곳까지 배웅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배향고개, 뱀구뎅이, 배암고개라고도 한다.

배향고개 [고개] → 배웅구뎅이

뱀구뎅이 [고개] 배웅구뎅이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마을이 들어서기 전에 이곳은 자갈밭으로, 그 속에 뱀이 많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배암고개라고도 한다.

서낭당돈돌목이 [터] 읍상5리 앞 서낭당이 있던 터를 가리키는 것으로, 넓은 바위가 있어서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놀았다고 한다. 예전에는 이곳까지 물이 들어와 낚시도 했다고 한다. 현재는 도로확장 공사로 서낭당은 철거되었다.

지칠바우 [바위] 읍상5리와 마산리 경계에 있는 바위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지금은 땅에 묻혔다고 한다.

향교말 [마을] 읍상5리에 속하는 마을로, 향교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향교촌이라고도 한다.

향교촌(鄕校村) [마을] → 향교말

읍하리(邑下里)

횡성읍의 아래쪽이 되므로 읍하동(邑下洞)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구리고개, 예숫물거리를 병합하여 읍하리라 하였다. 현재 1,2,3,4리로 분리되어 있다.

구리고개 [고개] 읍하2리 횡성군 농업기술센타 앞에 있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①예전에 구리(銅)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② 일제 때 밤나무가 많아서

일본어 구리(栗:밤)로 붙여진 이름이다. ③지금은 고개가 똑바르지만, 예전에는 고갯길이 꼬불꼬불하고, 땅이 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비석거리 [터] 읍하4리 강기슭에 있는 곳으로, 예전에 횡성의 각 마을에 산재해 있던 비석을 모아 이곳에 보관하던 까닭에 붙여진 이름이다. 6.25 때 비석들이 다 없어졌다고 한다.

밤나무거리 [터] 읍하4리 횡성군 농업기술센타가 위치한 주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이곳에 밤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상심이 [터] 현재 읍하4리 원흥 아파트가 위치한 곳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서낭당 [당] 읍하2리 들에 있는 것으로, 예전에는 읍하1리에서 주관하여 당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쇠우전거리 [마을] → 우시장거리

숲밖 [마을] 읍하3리에 속하는 마을로, 소나무 숲 밖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현재 횡성중·고등학교 바깥 마을을 가리킨다. 예전에 연못이 있어서 낚시질도 하였다고 한다. '숲밖에'라고도 한다.

숲밖에 [마을] → 숲밖

여숫물거리 [마을] → 예숫물거리

예숫물거리 [마을] 군청 옆에 있는 마을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여숫물거리라고도 한다. 예로부터 물맛이 좋기로 소문난 우물이 있다.

우시장거리 [마을] 읍하4리에 있는 마을로, 예전에 우시장인 쇠전이 서던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1984년까지 이곳에 우시장이 있었다. '쇠우전거리'라고도 한다.

운암정(雲岩亭) [정자] 읍하4리 원흥 아파트 앞 내 건너에 있는 정자로, 70여 년 전에 김한갑(金漢甲)과 이지식(李之植)이 함께 환갑을 기념하여 세운 정자이다. 운암(雲岩)은 두 사람의 호를 각각 따서 붙인 것이다.

가담리(佳潭里)

본래 횡성군 청룡면(靑龍面)의 지역으로, 전천[(前川),앞내] 가에 큰 늪이 있으므로 개늪, 변하여 개남 또는 가담(佳潭)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곽다리, 노장골, 대왕당, 번말, 사시골, 수류암을 병합하여 가담리라 하여 군내(횡성)면에 편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가담1리]

갓모바우 [바위] 마을 앞 내에 있는 바위로, 모양이 갓모자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개납 [마을] 개늪을 가리키는 것으로, 마을 분들은 흔히 '개납'이라고 말한다.
개늪 [마을] 가담1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마을에 큰 늪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망탕골 [골] 묵계리와 통하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바우자리 [들] 마을 앞 논에 큰 바위가 박혀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지금은 그 바위가 없어졌다.
벌말 [마을] 마을이 들에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평촌이라고도 한다.
새터고개 [고개] 가담1리에서 가담2리 새터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킨다.
서낭댕이 [마을] 예전에 서낭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가담2리와 경계에 있는 마을이다.
숲거리 [마을] 숲이 우거진 곳에 마을이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지금은 숲이 없다.
웃담 [마을] 개늪의 위에 있는 마을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평촌(坪村) [마을] → 벌말

[가담2리]

곽다리 [마을] 곽다리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곽다리 [다리] 수류암과 새터 사이에 있던 다리로, 예전에 노장골에 있던 절의 주지 곽(郭)씨가 다리를 놓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노장골 [마을] 가담2리 2반에 속하는 마을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대랫말 [마을] → 대아랫말
대아랫말 [마을] 가담2리 1반에 속하는 마을로, 수류암 아래쪽에 해당되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대랫말'이라고도 한다.
댕댕이 [골] 새터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빨래바우 [바위] 수류암 마을 앞 내에 있는 바위로, 큰 바위가 여자들이 빨래하기 좋게 놓여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예전엔 이곳에서 빨래를 많이 했다고 한다.

삼거리 [마을] 가담2리 4반에 속하는 마을로, 갈풍리, 묵계리, 가담리의 세 마을로 갈라지는 곳에 마을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사시동(四時洞) [마을] → 사싯골
사싯골 [마을] 가담2리 2반에 속하는 마을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사시동'이라고도 한다.
상투바우 [바위] 빨래바우 아래에 있는 바위로, 상투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새말 [마을] 가담2리 1반에 속하는 마을로, 마을이 나중에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새터 [마을] 가담2리 3반에 속하는 마을로, 새로 생긴 마을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새터고개 [고개] 새터에서 개늪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킨다.
수류암 [마을] 가담2리 1,2반에 속하는 마을로, 마을에 수류암이라는 바위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수류암(水流岩) [바위] 수류암 마을 앞 내에 있는 바위로, 여러 사람이 앉을 만하고, 그 앞에 흰 바위가 여기 저기 놓이고 그 사이 사이로 물이 흐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웃버덩 [들] 삼거리에 있는 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수류암 위쪽에 해당되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응달말 [마을] 가담2리 2반에 속하는 마을로, 응달쪽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중통말 [마을] 가담2리 2반에 속하는 마을로, 마을 중앙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갈풍리(葛豊里)

본래 횡성군 청룡면(靑龍面)의 지역으로, 조선시대 때 갈풍역(葛豊驛)이 있었으므로 갈풍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능골, 우렁바우, 마시골, 버덩말, 횟골을 병합하여 갈풍리라 하여 군내(횡성)면에 편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갈거리 [골] 우렁바우에 있는 골짜기로, 갈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골말 [마을] 갈풍리 4반에 속하는 마을로, 골짜기에 마을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너렁바우 [바위] 재삼이에 있는 바위로, 바위가 넓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너른골 [골] 능골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넓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노루고개 [고개] 재삼이에서 반곡리로 넘어가는 고개로, 예전에 노루가 이 고개로 많이 다녀서 붙여진 이름이다.
능골 [마을] 갈풍리 1반에 속하는 마을이다. 이 마을에는 원주(原州) 원씨(元氏)들의 조상묘가 있는데, 옛날에 원씨 중에 왕의 외척(外戚)이 있었다고 한다. 어느날 국상(國喪)이 나자 나라에서 그 외척에게 능(陵)자리를 알아보라고 하였는데, 그 외척은 이곳이 적당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곳에 조상의 묘가 있어서 고민을 했다. 당시는 100골이 넘어야 능으로 쓸 수 있는 까닭에 100골이 넘으나 100골이 안 된다고 했다. 이러한 연유로 능이 안됐지만 능으로 쓸 수 있는 충분한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대나무골 [골] 능골에 있는 골짜기로, 대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대왕골 [골] 능골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돌가마골 [골] 재삼이에 있는 골짜기로, 돌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돌고개 [고개] 재삼이에서 원주시 호저면으로 넘어가는 고개로, 돌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동막고개'라고도 한다.
동막고개 [고개] 돌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동막골에 있는 고개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동막골 [골] 재삼이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마시골 [골] 능골 수녀원이 위치하고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물가 [마을] 갈풍리 2반에 속하는 마을로, 물가에 마을이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수변'이라고도 한다. 예전에 이곳에서 떼를 띄워 보냈다고 한다.
바람골 [골] 우렁바우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다른 골짜기에 비해 바람이 많이 불지는 않는다고 한다.
뱀골 [골] 능골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좁고 길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버버리골 [골] 골말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분터골 [골] 송장골 옆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있는 유래는 모른다.
비득치 [고개] 능골에서 학곡리로 넘어가는 고개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샘치 [샘] 돌고개 옆에 있는 곳으로, 물이 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서풍재 [고개] 골말에서 우렁바우 절골로 넘어가는 고개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성골 [골] 갈풍리 1,2,3반에 걸쳐 있는 골짜기로, 성터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송장고개 [고개] 재삼이에서 원주시 호저면으로 넘어가는 고개로, 예전에 이 고개로 상여가 넘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수변(水邊) [마을] → 물가
약물탕골 [골] 재삼이에 있는 골짜기로, 약물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어우실 [골] 골말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작은어우실과 큰어우실이 있다.
우렁바우 [마을] 갈풍리 3반에 속하는 마을로, 마을에 우렁이처럼 생긴 바위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예전에 경치가 좋아서 양반들이 가마 타고 놀러 왔다고 한다.
장첨말 [터] 골말에 있는 터로, 예전에 장씨가 살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재삼이 [마을] 갈풍리 5반에 속하는 마을로, 마을에 고개가 세 개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재새미', '동막골'이라고도 한다.
재새미 [마을] → 재삼이
절골 [골] 우렁바우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절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큰절골과 작은절골이 있다.
절골 [골] 능골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절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조롱고개 [고개] 우렁바우에서 골말로 넘어가는 고개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총각산 [산] 버버리골에 있는 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호랑골 [골] 능골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이 골에 호랑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호병목 [고개] 골말에서 원주시 호저면으로 넘어가는 고개로, 예전에 호랑이가 새끼를 쳤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환디기 [여울] 마시골 안에 있는 곳으로, 물이 깊고 여울지는 곳이라 하여 붙여진 것이다.
횟골 [마을] 갈풍리 3반에 속하는 마을로, 예전에 회(灰)가 생산되던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개전리(介田里)

전천[(前川),앞내] 가에 마을이 있으므로 개와치, 개홧, 개전(介田)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무덤실, 산수골, 웃개홧, 벌말을 병합하여 개전리라 하였다.

개건너 [마을] 개전리 4반에 속하는 마을로, 벌말 앞 개울 건너에 있는 마을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뒷골 [골] 웃개홧에 있는 골짜기로, 마을 뒤에 있는 골짜기라 붙여진 이름이다.
무덤실 [마을] 개전리 3반에 속하는 마을로, 예전에 공동묘지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무두곡'이라고도 한다.
무덤실고개 [고개] 웃개홧에서 무덤실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킨다.
무두곡(茂豆谷) [마을] → 무덤실
백선재 [골] 웃개홧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번말 [마을] → 벌말
벌개홧 [마을] → 벌말
벌말 [마을] 개전리 4반에 속하는 마을로, 벌판에 있는 마을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벌개홧', '번말', '우촌'이라고도 한다.
산수골 [마을] 개전리 1반에 속하는 마을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강릉(江陵) 김씨의 산소가 있다고 한다.
선유골 [골] 웃개홧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우촌(友村) [마을] → 벌말
웃개홧 [마을] 개전리 2반에 속하는 마을로, 개홧 위에 있는 마을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정림골 [골] 산수골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좌수고개 [고개] 개전리에서 마산리로 넘어가는 고개로, 예전에 좌수가 넘어 다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하우고개'라고도 한다.
텃골 [골] 무덤실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하우고개 [고개] 좌수고개를 달리 부르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홍도산 [산] 무덤실에 있는 산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황새목 [마을] 산수골과 개홧에 걸쳐 있는 마을로, 형국이 황새목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곡교리(曲橋里)

본래 횡성군 청룡면의 지역으로서, 구부러진 곳에 다리가 있으므로 곱은다리, 곡교(曲橋)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신나무정이, 질가땀을 병합하여 곡교리라 하여 군내(횡성)면에 편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곱은다리 [마을] 곡교리 1반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마을에 있던 다리가 구부러져서 붙여진 이름이다.
두덩거리 [마을] 곡교리 1반에 속하는 마을로, 들이 두 덩어리로 되어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웃담이라고도 한다.
매이 [골] 곱은다리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큰매이와 작은매이가 있다.
송각시당 [당] 송각시당골에 있는 당으로, 예전에 각시를 모신 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지금은 없어졌다.
송각시당골 [골] 곱은다리에 있는 골짜기로, 이 골에 송각시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신나무쟁이 [터] 곱은다리에 있는 터로, 예전에 신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예전에 마을이 있었으나 지금은 논으로 변했다. 땅이 질어서 '진나무쟁'이라고도 했다.
웃담 [마을] 두덩거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마을이 위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진나무쟁이 [터] → 신나무쟁이
함바우 [바위] 앞내에 있는 바위로, 바위 모양이 옷을 넣는 함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교항리(橋項里)

전천[(前川),앞내] 다리목에 있는 마을이므로 다리목, 교항(橋項)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교항리라 하였다.

다리목 [마을] 교항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앞내다리 근처에 있는 마을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속숲 [마을] 교항리 1반에 속하는 마을로, 예전 느티나무 숲 안에 있는 마을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현재는 숲이 없다. '속숲에'라고도 한다.
속숲에 [마을] → 속숲
안말 [마을] 교항리 2반에 속하는 마을로, 안쪽에 있는 마을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앞내다리 [다리] 교항리에서 입석리로 건너가는 다리로, 앞내에 있는 다리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전천교(前川橋)'라고도 한다.
전천교(前川橋) [다리] → 앞내다리

궁천리(弓川里)

마을 앞을 흐르는 내(川)가 활처럼 휘어서 굽이쳐 흐른다고 하여 활아지, 궁천(弓川)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궁천리라 하였다.

궁천리앞들 [들] 궁천리 마을 앞에 있는 들을 가리킨다.
독립바우 [바위] 자래알바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주위 다른 바위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덤비골 [골] 궁천리 마을 뒤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밤나무골 [골] 궁천리 뒤에 있는 골짜기로, 밤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소태골 [골] 궁천리 뒤에 있는 골짜기로, 잎과 줄기가 쓴 소태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솔앞골 [골] 궁천리에서 송전리와 통하는 골짜기로, 송전리의 옛 이름이 솔앞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오목골 [골] 궁천리 뒤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오목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울바우 [바위] 궁천리 앞 개울 건너 편에 있는 바위로, 그 앞에서 소리를 내면 똑 같은 소리가 울린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자래알바우 [바위] 궁천리 앞 개울에 있는 바위로, 자라 알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독립바우'라고도 한다.

남산리(南山里)

본래 횡성군 청룡면(靑龍面)의 지역으로서, 마을에 남산(南山)이 있으므로 남산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남산리라 하여 우천면(隅川面)에 속했다가, 1973년 행정관할구역 개편으로 횡성면(橫城面)에 편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남산(南山) [산] 마을 뒤에 있는 산으로, 횡성군 소재지에서 남쪽이 되는 산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매봉'이라고도 한다.
달롱재 [고개] 송호대 입구에 있는 고개로, 매봉에서 사냥을 나선 매가 이 고개에 오면 다리에 맨 방울이 '달랑달랑' 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보광사와 통한다.
덕고산 [산] 마을 뒤에 있는 산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돌가리 [터] 송호대 입구를 가리키는 것으로, 돌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뒷골 [골] 남산리를 바라보며 우측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이 골 앞에 마을이 있었던 까닭에 당시는 마을 뒤에 해당되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현재 이 골 아래에는 마을이 없다.
매봉 [산] 남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매사냥을 하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벽절 [터] 생운리와 경계를 이루는 곳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빈잔등 [고개] 뒤골 옆에 있는 고개로, 예전에 장마가 져서 마을 앞에 있는 다리로 건널 수 없을 때 이 고개를 넘어서 입석리를 통해 장에 다녔다고 한다.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삼수살 [돌] 앞들에 박혀있는 세 개의 돌을 가리키는 것으로, 앞개울의 범람을 막기 위하여 세운 돌이다. 서낭당에서 서낭제사를 지낸 뒤 이곳에 와서 제를 올린다고 한다.

서낭당모텡이 [터] 서낭당에서 꺽어져 들어가 있는 모퉁이를 가리킨다.
승방골 [마을] 송호대학 옆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중이 거처하던 승방(僧房)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앞개울 [내] 남산리 앞을 흐르는 내로, 마을 앞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앞들 [들] 남산리 마을 앞에 있는 들을 가리킨다.
재등 [고개] 덕고산 밑에 있는 고개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절안 [터] 승방골 송호대학 뒤쪽으로, 예전에 절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절안양지 [터] 절안에서도 양지쪽에 있는 곳을 가리킨다.
지고리재 [고개] 신방골 위에 있는 고개로, 청룡리와 통한다.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향넘애 [터] 송호대학 입구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이곳에 남산리 사람들이 가장 먼저 정착한 곳이라 한다.

내지리(奈之里)

원래 메지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질가마골, 먹골을 병합하여 내지리라 하였다.

뒷베루 [벼랑] 전서방네미골 뒤에 있는 것으로, 마을 뒤에 있는 벼랑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머지 [마을] 내지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메지'라고도 한다.
머지고개 [고개] 내지리에서 마옥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내지리가 예전에 머지라 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메지 [마을] → 머지
모골 [골] 내지리에서 머지고개를 가며 좌측으로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분터골 [골] 머지고개 가기 전 우측 숲속가든이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삽다리 [내] 내지리에서 북천리 고네이베루 전까지의 내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이곳에 통발을 많이 놓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수풍 [터] 마을 초입 서낭당이 있는 터로, 예전에 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양짓말 [마을] 내지리 1반에 속하는 마을로, 양지쪽에 마을이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여우박골 [골] 예지나무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여우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예지나무골 [골] 뒷베루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왕덕골 [골] 분터골 옆에 있는 골짜기로, 왕이 날 묘자리가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응달말 [마을] 내지리 2반에 속하는 마을로, 응달쪽에 마을이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새미골 [골] 응달말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이생원이 살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전서방네미골 [골] 이세미골 맞은 편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전서방이 살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절골 [골] 마을 앞 개울 건너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절이 있었던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큰절골과 작은절골이 있다.
지르러미 [골] 질갓말에 있는 골짜기로, 마옥리 가녹골을 질러가는 길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질갓말 [마을] 저수지 너머에 있는 마을로, 예전에 옹기가마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집넘애 [골] 뒷베루 가는 골짜기로, 마을 뒤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충몽소 [소] 절골 초입 냇가에 있는 소(沼)로, 예전에는 깊었으나 지금은 메워졌다고 한다.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콩밭골 [골] 이세미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그 유래는 모른다.

마산리(馬山里)

마을에 말무덤산이 있으므로 말미, 마산(馬山)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쇠저리, 움막골을 병합하여 마산리라 하였다.

말무덤이 [산] 말미에 있는 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말의 무덤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옛날 황장사가 있었는데 용마를 얻었다고 한다, 어느 날 황장사는 화살과 용마 중 어느 것이 빠른가를 시험했는데, 시위를 당기고 목적지에 말을 타

고 달려가 보니 화살이 없었다. 이에 황장사는 “너는 용마가 아니구나”하며 말의 목을 쳤다. 그런데 그 때 화살이 날아와서 죄책감에 황장사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한다. ‘황룡고뎅이’라고도 한다.

말미 [마을] 마산리 3,4반에 속하는 마을로, 말무덤이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버덩말 [마을] 마산리의 2반에 속하는 마을로, 비교적 넓은 버덩에 마을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쇠저리 [마을] 마산리 1반에 속하는 마을로, 예전에 금사(金寺)라는 절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웅골 [마을] 마산리 5반에 속하는 마을로, 우묵한 골에 마을이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절골 [터] 말미와 쇠저리 사이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절이 있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황룡고뎅이 [산] → 말무덤이

마옥리(麻玉里)

본래 횡성군 군내(횡성)면의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웃가는골, 아랫가는골을 병합하여, ①마을 앞을 흐르는 냇가의 모래가 옥을 갈은 것처럼 희다 하여 마옥리라 하였다. ②옥동리에서 생산된 옥돌을 이곳에서 가공하였다 하여 마옥리라 하였다.

가녹골 [마을] → 가는골

가는골 [마을] 마옥리 3반에 속하는 마을로, 마을의 폭이 좁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가녹골’, ‘세동’이라고도 한다.

강구랭이 [골] 소구니 응달쪽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곤룡골 [골] 소구니 응달쪽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머드래 [골] 소구니 양지쪽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큰머드래와 작은머드래가 있다.

머지고개 [고개] 마옥리에서 내지리로 넘어가는 고개로, 내지리가 예전에 머지라 했기에 붙여진 이름이다.

바람부리 [골] 소구니 양지쪽에 있는 골짜기로, 바람이 많이 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석지골 [골] 소구니 응달쪽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세동(細洞) [마을] → 가는골
소구니 [마을] 마옥리 4반에 속하는 마을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고려 때 이 곳에서 궁녀가 났는데, 한(漢)나라의 왕소군(王昭君)과 같이 원나라로 끌려갔다고 한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 때, 소군리로 독립되었다가 1937년에 마옥리에 편입되었다.
자래바우 [바위] 하마옥 앞 내에 있는 바위로, 자래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솔앞골 [골] 소구니 양지쪽에 있는 골짜기로, 송전리와 통하는 골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점말 [마을] 마옥리 2반에 속하는 마을로, 예전에 옹기점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1960년대까지도 있었다.
진배골 [골] 점말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큰골 [골] 소구니 저수지 뒤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커서 붙여진 이름이다. 마을 공동산(공동묘지)이 있다고 한다.
피나무골[골] 점말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이 골에 이완용의 조상묘가 있었으나, 얼마 전 후손들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다고 한다. 약 250년된 묘로 오동나무로 관을 만들어 썩지도 않았다고 한다.
하마옥[마을] 마옥리 1반에 속하는 마을로, 마옥리 아래에 있는 마을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모평리(茅坪里)

본래 횡성군 청룡면(靑龍面)의 지역으로서 섬강가에 띠가 많은 벌판이었으므로 띠벌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모평리라 하여 군내(횡성)면에 편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귀융골 [골] 웃말에 있는 골짜기로, 소 구유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띳들 [마을] 모평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띠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맞바우 [바위] 아랫말에 있는 바위로, 바위가 서로 마주 보고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지금은 바위가 땅에 많이 묻혔는데, 묻히지 않았을 때 바위를 두드

리면 소리가 났으며, 이 바위 밑에 금붕어가 산다고 하여 마을 사람들은 바위 위에 불을 피우지 않는다고 한다.
바리재고개 [고개] 웃말에서 반곡리 바리재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킨다.
버덩 [들] 마을 앞에 있는 논을 가리킨다.
버린우물 [샘] 아랫말 들에 있는 샘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피부병 환자들이 이 곳에 와서 병을 버리고 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샘모텡이 [샘] 승지골 초입에 샘이 있는 곳으로, 예전에 이곳에서 물을 길어다 먹었다고 한다.
승지골 [골] 아랫말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아랫말 [마을] 모평리 1반에 속하는 마을로, 모평리에서 아래에 있는 마을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웃말 [마을] 모평리 2반에 속하는 마을로, 모평리에서 위에 있는 마을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원횡성배미 [들] 아랫말에 있는 논으로, 한 배미 논이 원주와 횡성의 경계로 나누어져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이지거리고개 [고개] 웃말에서 반곡리 이지거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킨다. 예전에 이씨가 살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초당둔지 [터] 아랫말에 있는 터로, 예전에 서당이 있던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큰새골 [골] 귀융골 안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묵계리(墨溪里)

본래 횡성군 청룡면의 지역인데, 조선 인조(仁祖) 때 한림(翰林) 이당(李塘)이 이 곳에 반구정(伴鷗亭)을 지어 놓고 후진들을 가르쳤는데, 그 때 먹을 갈고 붓을 씻어서 그 앞으로 흐르는 물이 항시 검었다 하여 묵계리(墨溪里)라 한다 하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오얏골, 버덩말을 병합하여 묵계리라 하여 군내(횡성)면에 편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뒷골 [골] 우무골 뒤에 있는 골짜기로, 마을 뒤에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막내골 [골] 안말에 있는 골짜기로, 마지막 골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메개 [마을] 묵계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묵계리앞들 [들] 청룡리 아래에 있는 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묵계리 앞에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반구정터 [터] 안말 뒤에 있는 곳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곳에 조선조 인조(仁祖) 때 한림이던 반구(伴鷗) 이당(李塘)이 자신의 호를 따서 반구정(伴鷗亭)이라는 정자를 지어서 후진들을 가르치던 곳이다.
버덩말 [마을] 묵계리 1반에 속하는 마을로, 버덩에 마을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안말 [마을] 버덩말 안쪽에 있는 마을을 가리킨다.
앞고개 [고개] 묵계리에서 입석리로 넘어가는 고개로, 횡성군청 소재지에서 볼 때 앞이 되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오얏골 [골] 현재 군부대가 있는 골짜기로, ①오야꽃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②옛부터 이씨들이 터를 잡고 살던 마을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우무골 [골] 안말 뒤에 있는 골짜기로, 우묵하게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승만별장터 [터] 반구정터 아래에 있는 곳으로, 전 대통령 이승만의 별장이 있었다. 현재는 여관이 들어 서 있다.
출렁다리터 [터] 예전에 모평리에서 반곡리로 건너 다니던 출렁다리가 있던 곳으로, 전 대통령 이승만 때 설치되었다고 한다. 출렁다리는 다리를 쇠줄과 판자로 만든 까닭에 사람이 이 다리를 다닐 때마다 '출렁출렁' 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반곡리(盤谷里)

본래 횡성군 청룡면(靑龍面)의 지역으로 밤나무가 많았으므로 밤두둑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무리개, 바리재, 사려울, 자개골, 절골을 병합하여 반곡리라 하여 군내(횡성)면에 편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개골 [마을] 반곡리 4반에 속하는 마을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개동'이라고도 한다.
개동(介洞) [마을] → 개골
관악바우 [바위] 칠우고개 옆에 있는 바위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꽃바우 [바위] 무리개에 있는 바위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예전에 고부자가 살았다고 한다.

노루고개 [고개] 무리개에서 갈풍리 재새미로 넘어가는 고개로, 예전에 노루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농바우 [바위] 원바우 아래에 있는 바위로, 농짝같이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두고개 [고개]- 사려울에서 칠우고개로 넘어가는 고개로, 고개가 둘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둘거실저수지 [저수지] 무리개와 웃말 사이에 있는 저수지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원래 이곳은 논이였다고 한다.

매봉재 [산] 매사냥을 하던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무리개 [마을] 반곡리 4반에 속하는 마을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윤포리라고도 한다

바리재 [고개] 바리재에서 모평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킨다.

바리재 [마을] 반곡리 5반에 속하는 마을로, ①오야꽃이 많이 피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②우봉(牛峰) 이씨들이 중심이 되어 마을이 일어났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발이현'이라고도 한다.

발이현(發李峴) [마을] → 바리재

밤두둑 [마을] 반곡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둑에 밤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벌통골[골] 사려울에 있는 골짜기로, 벌통을 많이 놓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보각대 [들] 웃말에 있는 고랑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고랑이 길다고 한다.

사래(四來)울 [마을] 사려울을 가리키는 것으로, 원주시와 접해 있는 까닭에 네 곳에서 이 마을로 들어 올 수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사려울 [마을] 반곡리 1반에 속하는 마을로, 모래 여울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사탄', '사래울'이라고도 한다.

사탄(沙灘) [마을] → 사려울

샘말 [마을] 무리개에 있는 마을로, 개골, 짝바우, 우물넘애 사이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말이다. 샛말이라고 하지 않는다.

소공동산 [터] 웃말 한강대 주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병든 소가 죽으면 갖다 묻은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숲밖 [터] 무리개에 있는 터로, 숲 밖에 있는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아랫말 [마을] 반곡리 1반에 속하는 마을로, 아래에 있는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역들 [들] 아랫말 앞의 논 중에서 일부분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역(驛)에서 관리하던 논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예전엔 역들만이 논이고 주위에는 밭이었다고 한다. 조선시대에 윗 마을인 갈풍리에 갈풍역(葛豊驛)이 있었다.

오찻골 [골] 아랫말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오씨 성을 가진 분이 살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사려울과 무리개로 통한다. 20여 년 전에 이 골에서 동전도 나왔다고 한다. '오처동'이라고도 한다.

오처골(吳處洞) [골] → 오찻골

우물넘애 [골] 무리개에 있는 골짜기로, 산등을 넘어서 이곳에서 물을 길어다 먹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웃말 [마을] 반곡리 2,3반에 속하는 마을로, 마을이 위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원바우 [바위] 웃말 앞 내에 있는 바위로, 주위에 있는 바위보다 높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윤포리(潤浦里) [마을] → 무리개

이지거리 [터] 바리재에 있는 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자개골 [마을] 반곡리 4반에 속하는 마을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자각골'이라고도 한다.

자각골 [마을] → 자개골

줄**바우** [바위] 절골에 있는 바위로, 바위가 줄줄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진등 [산] 무리개에 있는 산으로, 산등이 길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짝바우 [골] 무리개에 있는 골짜기로, 짝바우라는 바위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짝바우 [바위] 사려울에 있는 바위로, 큰 바위가 둘로 나뉘어져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참새골 [골] 웃말에 있는 골짜기로, 참새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칠우고개 [고개] 무리개에서 원주시 호저면 광격리로 넘어가는 고개로, 예전에 도적이 많아서 7명이 모여야 이 고개를 넘을 수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칠우현'이라고도 한다.

칠우현(七友峴) [고개] → 칠우고개

큰골 [골] 사려울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크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예전에 절이 있었다고 한다.

한강대 [터] 웃말 앞 냇가에 있는 곳으로, 조선 광해군 때 한강(寒岡) 정구(鄭逑)가 잠시 은거하며 이 곳에서 낚시를 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한강의 묘가 현재 반곡리에 있다고 한다.

북천리(北川里)

횡성읍 북쪽 냇가에 있으므로 북천(北川)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새말, 한둔내를 병합하여 북천리라 하였다. 현재 1,2리로 분리되어 있다.

고네이베루 [벼랑] 약수터에서 내지리 초입에 이르는 벼랑을 가리키는 것으로, ①예전에 고양이처럼 생긴 바위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②예전에 굴이 있었는데, 고양이가 이 굴을 통하여 다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논골 [마을] 고네이베루 가기 전 우측에 있는 마을로, 논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새골 [골] 뒷내 건너에 있는 골짜기로, 새초(억새)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웃새골과 아래새골이 있다. 예전에 공근면 오산리를 갈 때면 웃새골로 걸어 다녔다고 한다.
새말 [마을] 북천1리에 속하는 마을로, 새로 생긴 마을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50여 년 전에 생겼으며, 현재는 영진 아파트가 들어 서 있다.
용바우 [바위] 운동장 앞 뒷내에 있는 바위로, 뚫어진 구멍에서 용이 나왔는데, 물이 넘치면 그 모양이 괴이하다고 하며 장수발자국이 있다. 예전에 가물 때면 이곳에서 기우제를 지냈는데, 돼지를 잡았다고 한다.
중바우산 [산] 용바우 위에 있는 산으로, 바위가 중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전설에 의하면, 북촌리에 부자들이 여러 집 있었는데, 걸인과 중들이 자주 오는 까닭에 귀찮해 했다. 하루는 어느 집에 탁발 온 중이 있어서 하소연을 하자, 중이 중바우산을 가리키며 그 목을 치라고 하였다. 그래 그 목을 도끼로 내리치니 피가 나면서 머리부분의 바위는 굴러서 뒷내로 떨어졌다. 그 해부터 마을에 불이 나는 등 많은 재앙이 있어서 마을이 망했다고 한다.
한둔내 [마을] 북천1리에 속하는 마을로, 뒷내에 있는 마을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한뒷내라고도 한다.
한뒷내 [마을] → 한둔내

생운리(生雲里)

본래 횡성군 청룡면(靑龍面)의 지역으로서, 사룬, 사탄(沙呑)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버덩땀, 샛땀, 양짓말을 병합하여 생운리라 하여 우천면에 속했다가, 1973년 횡성면(橫城面)에 편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건는들 [들] 음짓말에 있는 들로, 양짓담 건너편이 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골밤모탱이 [들] 버덩땀에 있는 들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돌아가는 모퉁이에 있다고 한다.
곳집골 [골] 양지땀에 있는 골짜기로, 곳집이 있는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덕고산 [산] → 박달고랭이
박달고랭이 [산] 음짓말에 뒤에 있는 덕고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버덩땀 [마을] 생운리 2반에 속하는 마을로, 버덩에 마을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분투골 [골] 양지땀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추동리 안가래울과 통한다.
샛담 [마을] 생운리 3반에 속하는 마을로, 양지땀과 버덩땀 사이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솔거지들 [들] 솔공달 주위에 있는 들로, 소나무가 있는 곳에 들이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솔공달 [터] 양지땀 앞에 있는 소나무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송아지고개 [고개] 음짓말에서 남산리로 넘어가는 고개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양지땀 [마을] 생운리 1반에 속하는 마을로, 양지쪽에 마을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음짓말 [마을] 생운리 3반에 속하는 마을로, 응달쪽에 마을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자빠진골 [골] 음짓말 뒤 덕고산에 있는 골짜기로, 산등성이가 누워 있는 것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자차바우 [바위] 음짓말 건는들 위에 있는 바위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이 바위가 있는 곳이 예전 서울과 강릉을 도보로 다닐 때 중간이라고 한다.
자차바우들 [들] 음짓말 자차바우가 있는 주위의 들을 가리킨다.
잣나무골 [골] 양지땀에 있는 골짜기로, 잣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마을 공동산이 있다.
잿말 [마을] 생운리 1반에 속하는 마을로, 재 너머에 있는 마을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진골 [골] 자빠진골 옆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길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퉁퉁바우 [바위] 생운리 초입 전천(前川)에 있는 바위로, 바위를 두드리면 '퉁퉁' 소리가 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송전리(松前里)

마을 앞에 소나무가 많으므로 솔앞, 송전(松前)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불탄터를 병합하여 송전리라 하였다.

방아골 [골] 옥동리 방아골과 통하는 골짜기라 붙여진 이름이다.
벼락바우 [바위] 선바우 위에 있는 바위로, 어느 여자가 이 바위에서 오줌을 누다가 벼락을 맞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불탄터 [터] 아랫말에 있는 터로, 예전에 큰불이 나서 집을 모두 태웠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선바우 [바위] 마을 초입에 있는 바위로, 바위가 서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세룡골 [골] 아랫말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시룡골이라고도 한다.
소구니고개 [고개] 마옥리 소구니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킨다.
솔앞고개 [고개] 솔앞에서 마옥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킨다.
시룡골 [골] → 세룡골
아랫말 [마을] 송전리 2반에 속하는 마을로, 아래에 있는 마을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웃말 [마을] 송전리 1반에 속하는 마을로, 위에 있는 마을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큰고개 [고개] 갑천면 대관대리 사기막으로 넘어가는 고개로, 고개가 높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화세울 [골] 아랫말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활아지굴매이 [골] 궁천리로 통하는 골짜기로, 궁천리의 옛 이름이 활아지라 붙여진 이름이다.

영영포리(永永浦里)

마을 앞에 흐르는 전천[(前川),앞내]이 길어서 영영개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골땀, 국사당, 도장골, 버덩말, 절골을 병합하여 영영포리라 하였다.

골땀 [마을] 영영포리 2반에 속하는 마을로, 마을이 골짜기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국사봉 [마을] 영영포리 3반에 속하는 마을로, 국사봉에 있는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도장골 [골] 국사봉 밑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되재기 [마을] 영영포리 4반에 속하는 마을로, 세 면의 경계가 되어서, 세부 측량 때 이 면에서 재고, 저 면에서도 재고, 또 재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버덩말 [마을] 영영포리 3반에 속하는 마을로, 마을에 있는 들이 넓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서낭당고개 [고개] 안말에서 옥동리로 넘어가는 고개로, 예전에 서낭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안말 [마을] 영영포리 1반에 속하는 마을로, 안쪽에 있는 마을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약수탕골 [마을] 영영포리 3반에 속하는 마을로, 마을에 약수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물을 마시고 목욕을 하면 잔병이 없어진다고 한다.
어개 [터] → 어귀
어귀 [터] 골땀과 안말이 갈리는 초입을 가리키는 것으로, 두 마을 어귀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어개'라고도 한다.
절골 [마을] 영영포리 1반에 속하는 마을로, 예전에 절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집넘애 [마을] 도장골 마을회관 옆의 마을로, 골땀으로 가는 초입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천렵바우 [바위] 골땀 앞 개울에 있는 바위로, 바위가 넓어 이곳에서 천렵을 많이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한산바우 [바위] 천렵바우에서 약 100m 아래에 있던 바위로, 지금은 없다. '형제바우'라고도 한다.
형제바우 [바위] 한산바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바위가 두 개라 붙여진 이름이다.

옥동리(玉洞里)

옛날에 마을 뒷산에서 옥이 났으므로 옥골, 옥동(玉洞)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방학골, 빗김, 실아골, 오삼터를 병합하여 옥동리라 하였다.

돌터거리 [마을] 옥동리 4반에 속하는 마을로, 돌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비끼미', '비낌'이라고도 한다.
방아골 [마을] 방학골을 달리 부르는 것으로, 예전에 큰 연자방아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방학골(放鶴골) [마을] 옥동리 5반에 속하는 마을로, 예전에 학을 놓아 길렀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방아골'이라고도 한다.
비끼미 [마을] 돌터거리를 달리 부르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비낌'이라고도 한다.
비낌 [마을] → 돌터거리
소군리고개 [고개] 주막거리에서 마옥리 소군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킨다.
속등 [산] 실아골에 있는 산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솔밭구렁 [터] 방아골에 있는 터로, 소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실아골 [마을] 옥동리 2,3반에 속하는 마을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대추나무가 많았다고 한다.
아마골 [골] 방아골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안말 [마을] 방학골의 안쪽에 있는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안실아골 [마을] 옥동리 3반에 속하는 마을로, 실아골 안쪽에 있는 마을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양아치 [고개] 옥동리에서 갑천면 구방리로 넘어가는 고개로, 고개 마루가 둘로 되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양한치', '양학치'라고도 한다.

양학치(兩鶴峙) [고개] 양아치를 달리 부르는 것으로, 방학골(放鶴골)의 '학'자를 따서 붙여진 이름이다.
양한치(兩寒峙) [고개] 양아치를 달리 부르는 것으로, 갑천면 중금리 한치(寒峙)의 '한'을 따서 붙여진 이름이다.
엿세버덩 [들] 방아골에 있는 밭으로, 밭이 넓어서 6일을 갈아야 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오삼터 [터] 방아골에 있는 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옥골 [마을] 옥동리 1반에 속하는 마을로, 예전에 이곳에서 옥을 캐서 붙여진 이름이다.
우렁개 [마을] 주막거리에서 소군리고개를 가지 전에 있는 마을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응달말 [마을] 초등학교 주위에 있는 마을을 가리키는 것으로, 마을이 응달쪽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주막거리 [마을] 옥동리 2반에 속하는 마을로, 예전에 주막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진골 [골] 방아골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길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갑천면 대관대리 사기막과 통한다.
첫실아골 [마을] 옥동리 2반에 속하는 마을로, 실아골 초입에 있는 마을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입석리(立石里)

본래 횡성군 청룡면(靑龍面)의 지역으로, 선돌이란 바위가 있어서 선돌, 입석(立石)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버덩말, 장안리를 병합하여 입석리라 하였다.

곡금 [마을] 입석리 1반에 속하는 마을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공수골 [마을] 입석리 7,8반에 속하는 마을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버덩말 [마을] 입석리 3반에 속하는 마을로, 버덩에 마을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선돌 [바위] 앞말에 있는 돌로, 바위가 서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입석이라고

도 한다. 원래 이 바위에는 갓이 씌워있었고 앞에는 큰 못이 있었다고 한다. 이 마을에 사는 부자집에 손님의 방문이 많아 며느리가 귀찮아했다고 한다. 하루는 탁발 온 중에게 하소연을 하자, 그 갓을 떨어트리면 손님이 오지 않을 것이라 했다. 그리하여 며느리가 그 갓을 떨어트려 못에 빠졌는데, 그 바위에서 피가 솟았다고 한다. 이후 그 집은 손님이 끊기고 화재가 나서 집이 망했다고 한다.

앞고개 [고개] 입석리와 묵계리 경계에 있는 고개로, 횡성군 소재지에서 보면 앞에 해당되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앞고개 [마을] 입석리 6반에 속하는 마을로, 앞고개에 있는 마을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앞말 [마을] 입석리 4,5반에 속하는 마을로, 앞에 있는 마을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춘원국도 변에 있는 마을을 가리킨다.

입석(立石) [바위] → 선돌

장안 [마을] 입석리 2반에 속하는 마을로, 입석리의 중심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정암리(正庵里)

본래 횡성군 우천면의 지역으로서, 정암(正庵)이란 암자가 있었으므로 정암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오얏골, 안산, 망백, 황필, 누루운, 잣나무골을 병합하여 정암리라 하였다. 이후 1982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횡성읍에 편입되었다.

[정암1리]

누루니 [마을] → 누룬

누룬 [마을] 정암1리 2반에 속하는 마을로, 예전에 황씨들이 많이 살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누루니', '황운이'라고도 한다.

동막고개 [고개] 누룬에 있는 고개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뒷골 [골] 누룬에 있는 골짜기로, 마을 뒤에 있는 골짜기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백자동(栢子洞) [마을] → 잣나무골

법주고개 [고개] 잣나무골에서 법주리로 넘어가는 고개라 붙여진 이름이다.

비파재(琵琶재) [고개] → 핏밭재

자작고개 [고개] 행피울에서 문암리로 넘어가는 고개로, '자작자작' 걸어가는 고개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잣나무골 [마을] 정암1리 3반에 속하는 마을로, 예전에 잣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백자동'이라고도 한다. 작은잣나무골과 큰잣나무골이 있다.

핏밭재 [고개] 누룬에서 문암리로 넘어가는 고개로, ①옛날에 이 마을에는 강릉(江陵) 김씨가 매우 번성하였는데, 이를 시샘한 사람들이 이 고개를 잘랐더니 피가 났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②이 고개를 넘을 때 비파소리가 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비파재'라고도 한다.

행피울 [마을] 정암1리 1반에 속하는 마을로, 예전에 이 마을에 서당이 있어서 붓장사들이 자주 다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행필', '황피울'이라고도 한다.

행필(行筆) [마을] → 행피울

황운(黃雲) [마을] → 누룬

황피울 [마을] → 행피울

[정암2리]

감투바우 [바위] 양짓말에 있는 바위로, 감투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관암'이라고도 한다.

개병골 [골] 웃정암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어렸을 때 어른들이 도깨비가 나온다고 하였으며, 지금도 이 골은 으슥하여 무섭다고 한다.

공산재 [고개] 둔덕말에서 원주시 소초면 교항리 공산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킨다.

관암(官岩) [바위] → 감투바우

도다지골 [골] 양짓말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독가마골 [골] 웃정암에 있는 골짜기로, 이 골에 좋은 약수가 있어서 예전에 고관대작(高官大爵)들이 가마를 타고 드나들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독박골 [골] 웃정암에 있는 골짜기로, 이 골에 독처럼 생긴 바위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둔덕말 [마을] 정암2리 2반에 속하는 마을로, 둔덕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둔둔버덩 [고개] 웃정암에서 원주시 소초면 둔둔리 버덩말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킨다.

뒷골 [골] 양짓말에 있는 골짜기로, 마을 뒤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뒷골 [골] 웃정암에 있는 골짜기로, 마을 뒤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망박고개 [고개] 웃정암에서 정암1리 망백으로 넘어가는 고개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망백에서는 정암고개라 한다. 고개에 서낭당이 있으며, 음력 정월 초삼일에 웃정암 사람들만 서낭제사를 지낸다. 이 서낭당이 생긴 유래는, 예전에 이 마을에 해주 오씨가 살았는데 그들 중에 장군이 있었다. 그런데 그는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다. 이에 그 장군을 기리기 위하여 서낭당을 짓고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명복바우 [골] 웃정암에 있는 골짜기로, 이 골에 명복바우라는 바위가 있는데 이곳에서 소리를 지르면 메아리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사선암 [바위] 둔덕말에 있는 바위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장기판이 새겨져 있다.
산지당골 [골] 웃정암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산지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샘물둔지 [샘] 둔덕말에 있는 터로, 약수터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설통골 [골] 웃정암에 있는 골짜기로, 설통을 많이 설치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송둔폭포 [폭포] 양짓말과 웃정암 사이에 있는 폭포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천지개벽 때 이 폭포까지 물이 차서 배를 타고 놀았다고 한다.
승지골 [골] 둔덕말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시내림 [터] 웃정암에 있는 터로, 아름드리 소나무가 있다.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시내말림'이라고도 한다.
시내말림 [터] → 시내림
신배나무골 [골] 웃정암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신배나무가 많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양짓말 [마을] 정암2리 1반에 속하는 마을로, 양지쪽에 마을이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애비네지골 [골] 웃정암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웃정암 [마을] 정암리 3반에 속하는 마을로, 정암 위에 있는 마을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절골 [골] 웃정암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절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청룡골 [골] 웃정암에 있는 골짜기로, 청룡리와 통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칠칠바우 [바위] 둔덕말에 있는 바위로, 이 바위로 물이 '칠칠' 흐른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평풍바우 [바위] 청룡골에 있는 바위로, 바위가 병풍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피난박골 [골] 웃정암에 있는 골짜기로, 이 골에 피난바우라 불리는 바위가 있는데, 병자호란 때 이 바위로 피난을 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정암3리]

가래울고개 [고개] 안산에서 추동리 안가래울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킨다.
덕고산 [산] 망백 뒤에 있는 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덧자안 [골] 망백에 있는 산으로, 골짜기 정상을 가리킨다.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도둑골 [골] 안산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도둑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망박이 [마을] → 망백
망백 [마을] 정암3리 3반에 속하는 마을로, ①이 마을은 횡성 조씨의 집성촌으로 예전에 조씨 집안들이 과거를 보러 갈 때 선영에 고(告)하고 가는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②과거를 보러 갔다가 떨어져 흰 눈만 바라보며 한숨지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횡성 조씨(橫城 趙氏)의 발상지라 한다. '망박이'라고도 한다.
무채발골 [골] 망백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무채농사를 지어서 붙여진 이름이다.(무채농사:풀이 있는 곳에 흙으로 덮고 그 위에 곡식을 심는 농사법이라고 한다.)
사태봉 [산] 오얏골에 있는 산으로, 예전에 산사태가 나서 붙여진 이름이다.
불당골 [골] 망백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절이 있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안산 [마을] 정암3리 2반에 속하는 마을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안산들 [들] 안산 마을 앞에 있는 논을 가리킨다.
오얏골 [마을] 정암3리 1반에 속하는 마을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유산이골 [골] 망백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유씨가 살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큰유산이골과 작은유산이골이 있다.
재차바우 [바위] 오얏골에 있는 바위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절사랫들 [들] 오얏골에 있는 논으로, 예전 절의 땅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정암고개 [고개] 망백에서 정암2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킨다.
진골 [골] 망백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길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평풍바우골 [골] 망백에 있는 골짜기로, 골에 있는 바위가 병풍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조곡리(鳥谷里)

본래 횡성군 청룡면(靑龍面) 지역으로 ①지형이 새처럼 생겼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②새가 많이 날아와 서식하는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새골, 샛골, 조곡(鳥谷)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날골, 복개, 도일, 봉황동, 다리목을 병합하여 조곡리라 하여 우천면(隅川面)에 편입되었다. 이후 1973년 행정관할구역 개편으로 횡성면에 편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고내미고개 [고개] 조곡리에서 추동리로 넘어가는 고개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예전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한다.
구만이 [마을] 조곡리 1반에 속하는 마을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날골 [마을] 조곡리 2반에 속하는 마을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도일 [마을] 조곡리 4반에 속하는 마을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되일'이라고도 한다.
되일 [마을] → 도일
매봉재 [산] 도일에 있는 산으로, 예전에 매사냥을 하던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매지울 [마을] 조곡리 5반에 속하는 마을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복개 [마을] 조곡리 2반에 속하는 마을로, 큰 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우시장이 있는 마을이다.
사태골 [골] 도일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산사태가 나서 붙여진 이름이다.
산막골 [마을] 조곡리 1반에 속하는 마을로, 사방이 산으로 둘러 막혀서 붙여진 이름이다.
산막골재 [고개] 산막골에서 새골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킨다.
살봉 [산] 사태골에 있는 산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새골 [마을] 조곡리 3반에 속하는 마을로, ①지형이 새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②새가 많이 날아와 서식하는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웃새골과 아랫새골이 있다.
새재미 [골] 도일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솟을미 [묘] 새골에 있는 고판서 모친의 묘를 가리키는 것으로, 고판서가 과거에

급제하여 출세한 후 금의환향(錦衣還鄕) 하자, 고판서의 모친 묘가 갑자기 땅 위로 솟아 올랐다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지금도 솟아 오른다고 하며, 그것을 막기 위하여 큰 돌로 봉분 주위를 쌓았다고 한다.

안개울 [골] 도일 대신목장이 있는 골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언덕거리 [터] 횡성산업이 있는 곳으로, 예전에 약간 언덕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왕가래 [마을] 조곡리 3반에 속하는 마을로, 새골 위에 있다.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전설에 이 마을에서 왕이 났다고 한다. 웃가래와 아랫가래가 있다.

종지울 [골] 도일 미곡창고 뒤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청룡리(靑龍里)

본래 횡성군 청룡면의 지역으로서, ①횡성군의 청룡(靑龍) 줄기가 된다 하여 청룡이라 한다. ②청룡이 이 마을에서 등천하였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버덩말, 석전, 용수골, 뒷말을 병합하여 청룡리라 하여 군내(횡성)면에 편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거북바우 [바위] 뱀골에 있는 바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바위 모양이 거북이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날마지 [마을] → 말마지

덕고산 [산] 마을 뒤에 있는 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이재봉'이라고도 한다.

돈치기바우 [바위] 장재버덩에 있는 바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나무하러 다닐 때 이 바위에서 동전으로 돈치기 놀이를 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동막골 [골] 동쪽 덕고산 밑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이 막혀서 붙여진 이름이다.

뒷말 [마을] 청룡리 3반에 속하는 마을로, 뒤쪽에 있는 마을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말마지 [마을] 청룡리 4반에 속하는 마을로, 예전에 소금장사들이 말을 매어두던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마방이 있었다고 한다. '날마지'라고도 한다.

뱀골 [골] 석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이 뱀처럼 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석전(石田) [마을] 청룡리 3반에 속하는 마을로, 밭에 돌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솔모루 [터] 석전에 있는 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아랫말 [마을] 청룡리 1반에 속하는 마을로, 마을이 아래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앞고개 [고개] 청룡리에서 묵계농공단지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마을 앞에 있는 고개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용수골 [골] → 용사골
용사골 [골] 이곳에서 청룡이 이른 아침에 등천하려고 하는데, 마침 지나가던 어느 부인이 보고 "저기 용이 올라간다"고 했다. 그래 용이 등천하지 못하고 이곳에서 죽었다고 한다.
웃말 [마을] 청룡리 2반에 속하는 마을로, 마을이 위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재봉 [산] → 덕고산
장재버덩 [터] 석전에 있는 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산에 나무하러 다닐 때 이곳에서 장치기놀이를 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절골 [골] 절이 있던 곳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빈대로 인하여 절이 망했다고 한다. 20년 전에 사리탑을 마을로 옮기던 중 골짜기로 떨어졌는데, 지금도 찾으면 찾을 수 있다고 한다.
지구리고개 [고개] 청룡리에서 남산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는 소금장사꾼들이 이 고개로 넘어다녔다고 한다.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청룡저수지 [저수지] 청룡리에 있는 저수지라 붙여진 이름으로, 예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곳에서 낚시를 했다고 한다. 70여 년 전에 저수지가 생겼다고 한다.
하가터 [터] 동막골 밑에 있는 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하씨 성을 가진 사람이 살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행상바우 [바위] 장재버덩에 있는 바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바위가 상여 뚜껑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추동리(楸洞里)

본래 청룡면(靑龍面)의 지역으로서 가래나무가 많았으므로 가래울, 추동(楸洞)

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고내미, 괭지랭이, 버덩말, 새재미, 흑석동을 병합하여 추동리라 하여 우천면(隅川面)에 속했다가, 1982년 횡성읍으로 편입되었다.

개근네 [마을] 안가래울에서 개울 건너에 있는 마을을 가리킨다.
검은돌 [마을] 안가래울에 있는 마을로, 검은돌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검은들이라고도 한다.
검은들 [마을] → 검은돌
고내미 [고개] 버덩말에서 조곡리로 넘어가는 고개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전해오는 얘기로, 이 고개에 두 모자가 살았는데 아들이 난봉이 나서 이 고개를 넘어갔는데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고내미 [마을] 고내미 고개에 있는 마을을 가리킨다.
곳집거리 [골] 안추동에 있는 골짜기로, 곳집을 두던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광지랭이 [골] 안가래울에 있는 골짜기로, 농경지가 광주리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내추동(內楸洞) [마을] → 안가래울
버덩말 [마을] 외추동에 있는 마을로, 버덩에 있는 마을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예전에 갈대밭이었다고 한다. '버덩가래울', '외추동'이라고도 한다.
버덩가래울 [마을] → 버덩말
범바우 [마을] 안가래울 범바우 주변에 있는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범바우 [바위] 안개래울에 있는 바위로, 예전에 호랑이가 새끼를 쳐서 붙여진 이름이다.
봉우재 [산] 웃가래울에 있는 산으로, 옛날에 봉화를 올리던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분티골 [골] 안가래울 봉우재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상추동(上楸洞) [골] → 웃가래울
안가래울 [마을] 추동리 안쪽에 있는 마을로, 추동리 안쪽에 있는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내추동'이라고도 한다.
양짓말 [마을] 안가래울에 있는 마을로, 양지쪽에 마을이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외추동(外楸洞) [마을] → 버덩말
웃가래울 [골] 안가래울 위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마을이 있었으나 현재는 없다. '상추동'이라고도 한다.

응달말 [마을] 안가래울 응달쪽에 있는 마을을 가리킨다.
집넘애 [골] 안가래울에 있는 있는 골짜기로, 광지랭이 너머에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학곡리(鶴谷里)

본래 횡성군 공근면(公根面)의 지역으로서, ①지형이 학처럼 된 큰 골짜기에 마을이 있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②학이 많이 있어서 학골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다리골, 새말, 웃뒤룬, 아래뒤룬, 하일, 큰골, 금판골을 병합하여 학곡리라 하였다. 이후 1973년 행정관할구역 개편으로 다리골과 새말은 공근면 신촌리로 새롭게 편입되고, 나머지 지역은 횡성면(橫城面)에 편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학곡1리]

가마골 [골] 쇠판이 안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옹기가마와 숯가마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가운(加雲) [마을] → 뒤룬
금판동(金板洞) [마을] → 쇠판이
대곡(大谷) [마을] → 큰골
뒤룬[마을] 학곡1리 5반에 속하는 마을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벽학산 뒤가 되며, '가운'이라고도 한다. 웃뒤룬과 아랫뒤룬이 있다.
뒷골 [골] 죽촌에 있는 골짜기로, 마을 뒤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큰뒷골과 작은뒷골이 있다.
명막바우 [바위] 팔봉골에 있는 바위로, 명매기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쇠판이 [마을] 학곡1리 1,2반에 속하는 마을로, 예전에 금광산과 철광산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금판동이라고도 한다.
죽촌(竹村) [마을] 학곡1리 3반에 속하는 마을로, 대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큰골 [마을] 학곡1리 4반에 속하는 마을로, 마을이 큰 골에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대곡'이라고도 한다. 예전에 주막이 있었다.
팔봉골 [골] 큰골에 있는 골짜기로, 산봉우리가 8개라 붙여진 이름이다.

호랑바우 [바위] 팔봉골에 있는 바위로, 호랑이가 새끼를 쳤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학곡2리]

거릿말 [마을] 숲밖을 달리 부르는 것으로, 큰 길 주위로 마을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곰내미 [골] 화채봉 옆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곰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낡은골 [골] 논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논골 [골] 막골 맞은편에 있는 골짜기로, 논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덕골 [골] 하일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전염병이 돌 때 전염된 사람이 죽으면 덕을 설치하여 시체를 임시로 옮겨 놓았던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텃골'이라고도 한다.
도둑골 [골] 숲밖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막골 [골] 하일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막혀서 붙여진 이름이다. 아랫막골과 웃막골이 있다.
먹골 [골] 숲밖에 있는 골짜기로, 이 골에 있는 바위가 검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버들숲 [터] 하일과 숲밖 사이에 있는 곳으로, 버드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현재는 여러 수종이 있다.
불당골 [골] 곰내미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절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산자골 [골] → 산지당골
산지당골 [골] 숲밖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산지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산자골'이라고도 한다.
숲밖 [마을] 학곡2리 1반에 속하는 마을로, 숲 밖에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거릿말'이라고도 한다.
오리골 [골] 원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골이 길다고 한다. 학곡1리와 2리의 경계에 있다.
원골 [골] 숲밖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원님이 묵어 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잣나무골 [골] 먹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잣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장지고개 [고개] 학곡2리에서 공근면 신촌리로 넘어가는 고개로, 고개가 길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질그내미 [골] 잣나무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텃골 [골] → 덕골
하일 [마을] 학곡2리 2반에 속하는 마을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화채봉 [산] 하일에 있는 산으로, 천지개벽 때 산이 물에 잠기고 상여 뚜껑인 화채만큼 남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횟골 [골] 하일에 있는 골짜기로, 회(灰)가 많이 나서 붙여진 이름이다.

[제보자]

(이상용, 남, 65세, 읍상4리 토박이)
(안창호, 남, 59세, 두곡리 태생으로 40년 전에 읍상1리로 이주)
(이종각, 남, 76세, 읍상5리 토박이)
(김창순, 여, 54세, 용둔리 태생으로 34년 전에 읍하4리로 시집 옴)
(김종근, 남, 69세, 학곡리 태생으로 45년 전에 읍하4리로 이주)
(허대성, 남, 63세, 원주시 소초면 태생으로 13세에 읍하3리로 이주)
(조돈옥, 남, 71세, 둔내 태생으로 47년 전에 가담1리로 이주)
(이완규, 남, 74게, 공근 태생으로 60년 전에 가담2리로 이주)
(박병기, 남, 62세, 가담2리 토박이)
(신동길, 남, 52세, 여주 태생으로 14년 전에 갈풍리로 이주)
(김정식, 남, 67세, 공근 태생으로 35년 전에 갈풍리로 이주)
(임채신, 남, 39세, 갈풍리 토박이)
(배종한, 남, 45세, 갈풍리 토박이)
(배종구, 남, 56세, 갈풍리 토박이)
(김동석, 남, 73세, 갈풍리 토박이)
(이타관, 남, 50세, 갈풍리 토박이)
(김태선, 남, 63세, 개전리 토박이)
(김기원, 남, 72세, 개전리 토박이)
(박호선, 남, 68세, 곡교리 토박이)
(김주식, 여, 75세, 교항리 토박이)
(김봉근, 남, 64세, 홍천 태생으로 45년 전에 궁천리로 이주)
(원종택, 남, 67세, 남산리 토박이)
(전흥두, 남, 59세, 내지리 토박이)

(김동호, 남, 46세, 내지리 토박이)
(김동근, 남, 68세, 내지리 토박이)
(김선재, 남, 83세, 내지리 토박이)
(황성환, 남, 64세, 마산리 토박이)
(김용배, 남, 66세, 중금리 태생으로 18세에 마옥리로 이주)
(이재현, 남, 75세, 송전리 태생으로 40년 전에 마옥리로 이주)
(신승손, 남, 82세, 매일리 태생으로 40년 전에 마옥리로 이주)
(허원교, 남, 73세, 모평리 토박이)
(허남훈, 남, 51세, 모평리 토박이)
(이택구, 남, 79세, 묵계리 토박이)
(정운하, 남, 63세, 반곡리 토박이)
(정운홍, 남, 46세, 반곡리 토박이)
(이종만, 남, 70세, 반곡리 토박이)
(정호승, 남, 88세, 북천리 토박이)
(박은선, 남, 69세, 생운리 토박이)
(권영학, 남, 76세, 송전리 토박이)
(박만식, 남, 59세, 영영포리 토박이)
(변강훈, 남, 47세, 옥동리 토박이)
(최서현, 남, 61세, 옥동리 토박이)
(김동준, 남, 58세, 입석리 토박이)
(윤희수, 남, 73세, 입석리 토박이)
(원태연, 남, 66세, 정암1리 토박이)
(박양선, 남, 86세, 정암1리 토박이)
(도호근, 남, 64세, 정암2리 토박이)
(허동욱, 남, 94세, 정암3리 토박이)
(김대봉, 남, 53세, 조곡리 토박이)
(홍순화, 남, 57세, 조곡리 토박이)
(이옥연, 여, 86세, 원주시 태장 태생으로 9세에 조곡리로 이주)
(진도용, 남, 78세, 청룡리 토박이)
(전맹규, 남, 78세, 정선 태생으로 32년 전에 청룡리로 이주)
(정호은, 남, 64세, 둔내 태생으로 30년 전에 청룡리로 이주)
(이상묵, 남, 71세, 추동리 토박이)
(이한우, 남, 81세, 추동리 토박이)
(이상철, 남, 70세, 추동리 토박이)

(이상덕, 남, 59세, 충주 태생으로 40년 전에 추동리로 이주)
(김태윤, 남, 78세, 학곡1리 토박이)
(김학수, 남, 71세, 학곡2리 토박이)
(고상근, 여, 57세, 학곡2리 토박이)